

봄... SPRING



정순이 작 '시간으로의 여행'

17일까지 동시대문화박물관

나주 동시대문화박물관은 17일까지 '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인재·김소영·박선주·서병욱·유수중·유예린·이혜정·임수현·전영화·정송규·정순이·정유규·채종기·최향·하지희·한희원·황순칠씨가 참여한다.

고인재씨는 채리가 가득한 화면에 화사하게 핀 양귀비꽃을 선사하고, 서병욱씨는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흥매화 작품을 전시한다.

또 유수중씨는 달을 배경으로 활짝 핀 해오라비 꽃을 화폭에 담았고, 최향씨는 꽃망울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파꽃 연작을 출품했다. 문의 061-330-382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평화연극제' 올해 5·18 무대로

7~14일 문예회관... 시민심사단, 평화연극상 시상

8개 극단 하나의 무대에서 공연... 日·中 작품도 만나

지난해까지 10월에 행사를 열었던 광주 평화연극제가 올해부터 5월로 시기를 옮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는 7일~14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010평화연극제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5·18, 무대에서 길을 물었다'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연극제에 참여하는 국내 8개 단체에게 똑같은 무대가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도청 앞 분수대를 상징하는 듯한 원형과 긴 널판지, 만장이 어우러진 똑같은 무대를 8개 극단이 어떻게 활용해 작품으로 완성해 낼 지 관객들에게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다.

사실, 지금까지 5월이라는 소재는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다양한 예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됐지만 내용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형식적 실험은 뜸했던 게 사실. 그런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연극의 매력인 연출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극단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무대 디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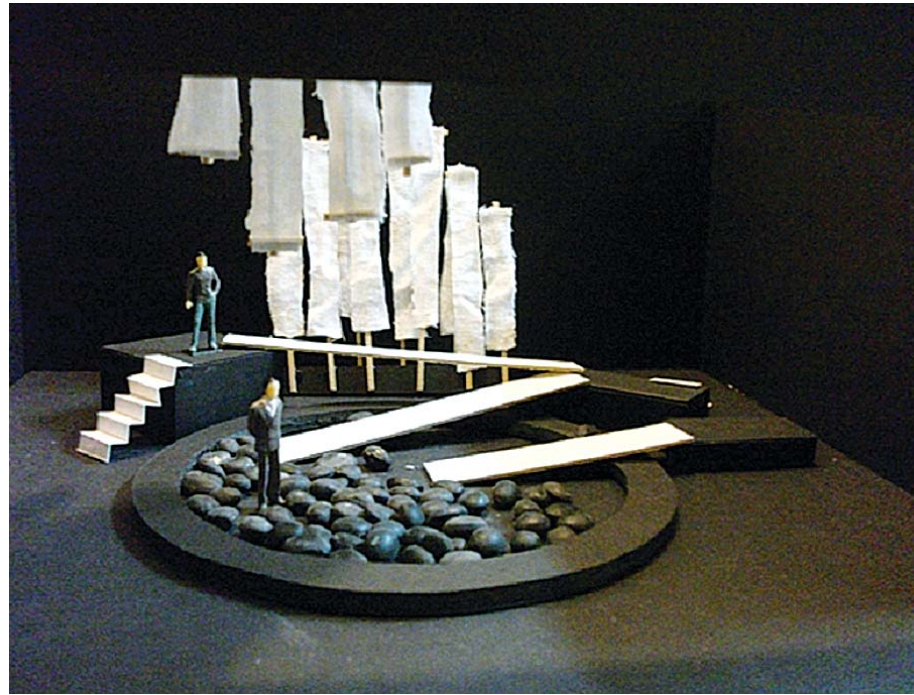
이인애씨가 맡았다. 서울대 미대 출신인 이씨는 공연예술아카데미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했으며 미국 인디애나 대학 등에서 무대미술을 공부했다.

지역과 서울에서 각각 4개 극단씩 모두 8개 극단이 참여한다. 광주에서는 푸른연극마을(연출 오성완)의 '망월', 아트컴퍼니 원(연출 원광연)의 '그와 나', 극단 얼·아리(연출 양정인)의 '꿈', 유피씨어터(연출 이정대)의 '아 광주'가 참여한다.

서울에서는 작은 신화(연출 반무섭)의 '망각', 극단 노들의 '오후 5시', 극단 각인각색(이정하 연출)의 '역사는 흐른다', 서울연출가협회(송규홍)의 '조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독특한 형식의 공연인 테라 김길수(순천대), 백현미(전남대) 교수가 공연 길라잡이로 나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 경연의 최고 작품에는 평화연극상을 시상한다. 오는 4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할 31명의 시민심사단이 심사를 할 예정.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일본과 중국 작품들도 관객들을 만난다. 중국의 Z필



올해 '평화연극제'는 8개 극단이 똑같은 무대를 활용한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무대 디자인이 이인애씨가 제작한 무대.

름&드라마 컴퍼니는 '상하이 랩소디'(10일 오후 6시)를 무대에 올린다.

일본의 TBS 극단은 한국 극단 창우와 공동작업한 '게와 그녀와 이웃 일본인'(12일 오후 4시·7시30분)을 선보이며 극단 천년왕국은 '위작자'를 공연한다.

올해 예산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었고,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주최자로 참

여한다.

최영화 연극협회장은 "사실, 5월이라는 주제는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번의 시도로 색다른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일반 2만원, 중고생 1만원.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구스타프 말러

서거 100주기 특집

KBS 클래식FM 5월 한달간

KBS 클래식 FM(93.1MHz)은 작곡가 겸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1860~1911) 서거 100주기를 기념해 5월 한달간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먼저 'FM 실황음악(월~금 오후 8시)'은 오는 9~25일 유럽방송연맹(EBU)을 통해 입수한 최신 공연 실황을 전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사 이먼 래플, 데이비드 진먼 등 말러 스펙트리스트들이 지휘한 교향곡 연주와 말러가 편곡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등을 감상할 수 있다.

12일 낮 12시에는 'KBS 클래식 FM 정오음악회'가 자체 기획한 말러 음악회를 방송하며 14~15일 오후 6시에는 'FM 음악가이드'가 말러 교향곡 감상을 위한 '가이드 음반'들을 소개한다.

말러 서거일인 18일부터 20일까지는 3부작 다큐멘터리 '내가 사랑한 말러(오후 1시)'가 전파를 탄다. 방송인 이금희와 가수 김동률, 배우 박해미가 말러의 주변 인물 역을 연기하고 지휘자 정지용 등 말러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삽입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연합뉴스



"한글 어린이대장경 꼭 필요하죠"

나종하 경전연구소장 기금마련 '원학 스님 반야심경전' 내일까지 원화량

"어린이를 위한 한글 대장경은 아직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경전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한글 어린이대장경 발간을 위한 기금 모금 전시회를 열고 있는 나종하(65) 경전연구소 소장은 한글 대장경 발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불교 초기(원음) 경전인 팔리어경전의 연구·번역을 위해 설립된 경전연구소가 4월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원화량에서 한글 어린이대장경 발간을 위한 기금마련전 '원학 스님 반야심경전'을 연다.

나 소장은 이번 전시회는 결국 경전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팔리어경전의 번역을 위한 예비작업이라고 말한다.

한글 어린이대장경 발간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나 소장은 "에센스만 뽑아도 46권 이상이 되더라고요. 어린이용이라 삽화도 많이 넣고, 동화책처럼 쉽게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 소장이 팔리어경전 번역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광사로 출가한 나 소장은 법경 스님의 제자로 '돈연'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이었다. "1970년대부터 경전 번역일을 해왔습니

다. 처음에는 당연히 한문경전만 있는 줄 알고 번역했는데, 어느 날 한문경전 번역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원전(팔리어)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1982년부터 2년간 인도에서 팔리어경전에 관한 공부를 했죠."

이후 귀국해 1985년 경전연구소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팔리어경전 번역에 힘을 쏟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전의 양이 엄청나 이를 꾸준히 연구·번역하는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컸다.

"빈자 팔자 경전 발간에 힘을 보태줬다"고 전통장 제조회사도 설립했지만 생각처럼

녹록치 않았다.

나 소장은 "불사나 불상 만드는 데는 불자들이 흔쾌히 돈을 내놓는데 경전 번역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재정적 후원이 적다보니 자꾸 발간작업이 늦어져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나 소장은 이번 3개 도시 전시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울산, 부산 등 전국 순회 전시와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강연을 준비 중이다. 또 한글 어린이대장경이 완료되는 대로 영어·일본어판도 만들어 대장경을 콘텐츠화하는 사업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과거한 이후 강원도에서 '영원한 농부'로 살고 있다는 나 소장은 나주 출생으로 '시인과 농부 그리고 스님' 등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이다.

전도유망한 헬리스크의 삶을 접고 스님과 결혼해 매주공장 '매주와 헬리스크'를 운영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도완너씨가 그의 아내다. 문의 011-524-002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인회 창립총회

내일 선언문 채택·임원선출

지역 예술계 원로들로 구성된 광주문화예술인회 창립총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라마다호텔 5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예술인회에는 강봉규씨를 발기인 대표로 국선환·김영태·문병란·문순태·송준영 등 문학·미술·음악·무용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5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선언문 채택과 정관 심의가 이뤄지며 임원도 선출한다. 문의 062-222-66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음 자생녹차

천년의 맛과 향을 간직한 정음 자생녹차



하늘을 여는 청아한 차...

파란 하늘 아래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차나무 잎...

장인의 혼을 담아 정성스런 손끝으로 담아낸 정음 자생녹차!!



정음자생차향토사업단
<http://www.jeongeuptea.com>
 Tel:063)539-6321~3